

‘무주국가유산축전’ 성황리 개최

들소리 경연 · 조선왕조실록 이안행렬 재연 등 지역 역사 · 문화 총망라... 관광 · 경제 활성화 호평

2024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 무주국가유산축전이 지난 5일 무주한풍루와 무주향교 등 무주군 일원에서 개최됐다.

무주군이 주최하고 무주문화원과 한국역사교육문화연구소, 전북특별자치도 민속예술진흥회 연합회와 무주군 민속예술진흥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무주군 국가유산과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망라해 대중이 즐길 수 있는 축전으로 완성됐다는 점에서 호평을 얻었다.

5일 오전 무주국가유산축전의 막을 올린 ‘전북특별자치도 들소리 한마당 경연대회’에서는 무주군 치목삼베짜기보존회의 “적상면 치목마을 삼베일소리”를 비롯해 서면마을 장례요보존회의 “서면마을 장례요” 등 도내 14개 시군 9개 참가팀이 준비한 들소리(농요와 민요, 제례요) 경연이 펼쳐져 흥을 돋웠으며, 오후 2시부터는 무주읍 사랑의 다리(남대천교)에서 한풍루까지 2시간에 걸쳐 ‘조선왕조실록 묘향산 사고본 적상산사고 이안 행렬(현감 행렬, 봉안사 행렬, 무주 협감 봉안사 맞이, 관아보관식 행렬, 관아보관식, 적상산사고 봉안식 행렬, 봉안식)’이 펼쳐져 장관을 연출했다.

재연 행렬에는 황인홍 무주군수가 무주현감으로 분한 것을 비롯해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지역 내 기관사회단체장들이 군관과 예조당상 등 주요 인물로 출연했으며 주민들도 행렬단으로 동참(인원 388명, 말 17필)해 의미를 더했다.

주민들은 “무주군민으로서 역사적인 현장에 함께 서볼 수 있었다는데 보람을 느낀다”라며 “올해는 무주지역의 국가유산을 한눈에 보고 체험도 할 수 있는 행사로 진행돼서 굉장히 유익했다”라고 전했다.

저녁 5시 30분부터는 무주군청(앞마당)과 한



2024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 무주국가유산축전이 지난 5일 무주한풍루와 무주향교 등 무주군 일원에서 개최됐다.

풍루 등지에서 7(야)를 주제로 “무주문화유산야행”이 진행돼 방문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밤에 비춰보는 국가유산(야경)을 비롯해 밤에 걷는 거리(야로), 밤에 듣는 이야기(야사), 밤에 보는 그림(야화), 밤에 감상하는 공연(야설), 밤에 즐기는 잔치(야식·야시)를 테마로 다양한 공연과 체험, 놀이 등이 펼쳐졌다. 무주군청(앞마당)에서는 클래식(브뤼엘)과 국악(툰), 보컬(서진은) 공연이, 한풍루(지남공원)에서는 6시부터 ‘북청사자놀이’와 태권도시범(싸울아비), 개막식 & 산도 풍물 공연, 태권락 퍼레이드가 개최됐다. 무주향교에서는 인형극(안국사 학대사의 전설)을 시작으로 성악(파스텔), 클래식(브뤼엘), 전통공연(툰), 사물놀이(아리랑) 등이 진행됐

으며 무주안성낙화놀이도 펼쳐져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외에도 조선왕조실록 역사관 관람을 비롯해 적상산 컬러링북, 적상산성 3D퍼즐 체험, 무주 큐브만들기와 한풍루 3D퍼즐, 삼베짜기 재연과 체험, 소원등 만들기, 지질공원해설사 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보물 한풍루를 비롯해 무주군의 우수한 유·무형·향토·민속 문화유산을 다양한 공연과 전시, 체험, 먹거리와 이야기로 풀어냈는데 자부심을 느낀다”라며 “무주국가유산축전을 통해 ‘무주다움’이 살아나고 또 축전이 산골영화제, 반딧불축제와 함께 무주를 대표하는 역사문화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성 기자

전주서 한지 우수성 · 예술성 알린다

한국전통문화전당, 9~13일 전주국제한지산업대전 개최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오는 9~13일 닷새간 한지의 본고장 전주에서 ‘2024 전주국제한지산업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후원을 받아 행사의 규모가 대폭 확대된 이번 전주국제한지산업대전은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로서 한지의 우수성과 예술성, 산업의 지속 가능성 등을 폭넓게 보여주고자 주 행사장을 한국전통문화전당과 전주페스타가 열리는 종합경기장으로 장소를 이원화했다.

먼저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는 9일부터 한지의 역사부터 미래 산업까지 살펴볼 수 있는 전시 관람형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세부적으로는 △자연에서 시작되어 장인의 손을 거친 한지를 조명하는 ‘한지역사주제관’ △옛 한옥가옥의 전통적 아름다움에 현대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한지 상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한지산업주제관’ △30주년을 맞이한 ‘전국한지공예대전 초대작가전’ △한지를 활용한 다양한 현대 공예를 보여주는 ‘한지현대조형기획전’ △세계의 종이문화를 엿볼 수 있는 ‘국제종이문화기획전’ 등이다.

이어 종합경기장에서는 11~13일 한지 문화를 보고 듣고 만들어보는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세부적으로는 △전국의 패션디자이너들이 참여한 한지 의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한지패션쇼’ △한지



공예 체험, 한지 쓰기 체험, 목판 인쇄 체험, 한지연 만들기 등 ‘한지문화 체험부스’ △지역의 한지를 볼 수 있는 ‘지역한지 브랜드관’ △한지 공방, 기업, 학교 등이 참여하는 ‘상품 판매관’ △한지장본들이 직접 선보이는 ‘전통 한지 쓰기 공개 시연’ 등이 있다.

특히 올해로 3회를 맞는 ‘한지의 날’ 리셉션이 10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진행된다. 아울러, 독일 뮌헨에서는 10월 10일 한지의 날을 기념해 ‘한지 소통의 미학’을 주제로 국제 한지문화 특별전이 열린다. /장은성 기자

전북자치도문화관광재단 이경운 대표이사 연임 확정

문화관광 다양한 사업 유치 · 현장 소통 등 지역 경제 활력 불어넣어

이경운 대표이사가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제5대 대표이사로 공식 취임했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지난 4일 김관영 도지사로 부터 임명장을 받고, 2026년 10월 6일까지 재단을 이끌게 됐다.

이에 따르면 이 대표이사는 2022년 4대 대표이사로 임기를 시작한 이후 굵직한 성과를 남겼다. 특히,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전략적 리더십이 주목받았다.

재임 기간 그는 중앙정부의 예산 감축 속에서도 국비 60억 원을 확보해 예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유치했다. 또한 치유·의료 관광 사업 등에

서도 새로운 예산을 끌어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와 함께 예술 현장과의 소통 강화도 주요 성과 중 하나다. 예술인 실태조사와 현장 수요를 반영해 신규 사업을 개발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감으로써 재단 신뢰도를 높였다.

재단 내부의 안정화를 위해 성과평가 체계와 임금체계도 개편했다. 이를 통해 내부 공정성을 강화하고, 직원 처우를 개선해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다양한 외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9개의 새로운 사업을 추진, 재단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도 일조했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다시 한번 재단을 이끌 기회를 준 것에 감사드립니다”며 “전북 특유의 문화예술 전략과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재단이 성과를 내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은성 기자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문화공연 준비 구슬땀

지구촌 곳곳에서 활동 중인 재외동포 경제인과 국내 경제인이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민족 경제영토를 확대하기 위한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에서 풍성한 대장정의 막을 올린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대회를 통해 국내외 경제인들에게 풍성한 경제 성과와 차별화된 고품격 K-문화를 선보여 전북의 이미지 제고에 물론, 가을의 추억과 낭만을 선사할 계획으로 문화공연 준비에 연일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주요 문화 프로그램으로는 대회 성공개회를

기원하는 21일 사전공연인 전북 출신 가수들의 ‘트롯 SHOW’와 23일 전북도의 문화와 정서, 심상을 느낄 수 있는 창작 무용극 ‘고섬섬’,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전라감영에서 개최되는 제7회 무형유산 한마당 축제까지 전북민의 흥과 맛이 살아있는 공연 준비에 여념이 없다.

이외에도 판소리와 클래식, K-pop과 국악,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다양한 버스킹 공연이 대회장(전북대) 분수대와 한옥마을 일원 곳곳에서 펼쳐져 전북을 찾은 국내외 경제인들에게 소리의 고장 전북 전주만의 멋진 가을 소리와 정취를 선사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흥부골 남원농악경연대회 성료

남원시 요천면 특설무대(요천 수경 음악분수 주변)에서는 지난 5일, 올해 24회를 맞는 흥부골 남원농악경연대회(사)국가무형유산 남원농악보존회 주관으로 열띤 경연을 펼쳤다. 흥부골 농악경연대회는 흥부제를 기념하고 남원농악을 널리 알리고 위상을 제고하는 한

편, 농악을 통한 읍면동 농악단 및 시민 화합과 단합을 도모하는 취지로 매년 열리고 있으며, 도동동 농악단이 대상을 차지했다.

남원농악보존회 김경현 회장은 “농악경연대회를 계기로 남원농악이 더욱 활성화되어,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웃으며 소통하는 축제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형회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 때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더하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처: 문화재청 제공)